

아프리카 채권시장 동향

작성자 : 장종문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)

작성일 : 2013년 5월 24일

■ IMF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의 채권발행열풍이 개별국가들의 부채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 (The Wall Street Journal, 2013.05.10, "IMF Warns on Rush for African Debt")

- IMF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남아공을 제외한 콩고, 코트 디부와르, 가봉, 가나, 나이지리아 등 10개 국가만이 국채를 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.
-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발행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 규모는 무려 70억 달러로 지난 5년간 발행된 아프리카의 국채의 총량을 넘어서는 규모임. (Bloomberg Businessweek, 2013.05.08)
 - 이러한 국채발행 붐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이미 동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케냐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등도 각각 10억 달러 수준의 국채발행을 계획을 가지고 있음.

표 1.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발행 현황

국가명	발행일	수익률 (발행시점)	기한	규모(백만\$)	S&P(발행기 신용등급)	발행통화
세이셸	9/27/2006	9.46	5	200	B	USD
가나	9/27/2007	8.50	10	750	B+	USD
가봉	12/06/2007	8.25	10	1000	BB-	USD
콩고	12/07/2007	8.77	22	480	없음(Not rated)	USD
세네갈	12/05/2009	9.47	5	200	B+	USD
세이셸	1/14/2010	-	16	168	없음(Not rated)	USD
코트디부와르	3/15/2010	17.354	22	2330	없음(Not rated)	USD
나이지리아	1/21/2011	7.126	10	500	B+	USD
세네갈	5/6/2011	9.125	10	500	B+	USD
나미비아	10/27/2011	5.835	10	500	없음(Not rated)	USD
잠비아	9/13/2012	5.625	10	750	B+	USD
탄자니아	2/27/2013	-	7	600	없음(Not rated)	USD

자료: IMF 2013, Sub-Saharan Africa Building Momentum in a Multi-Speed World, 저자 재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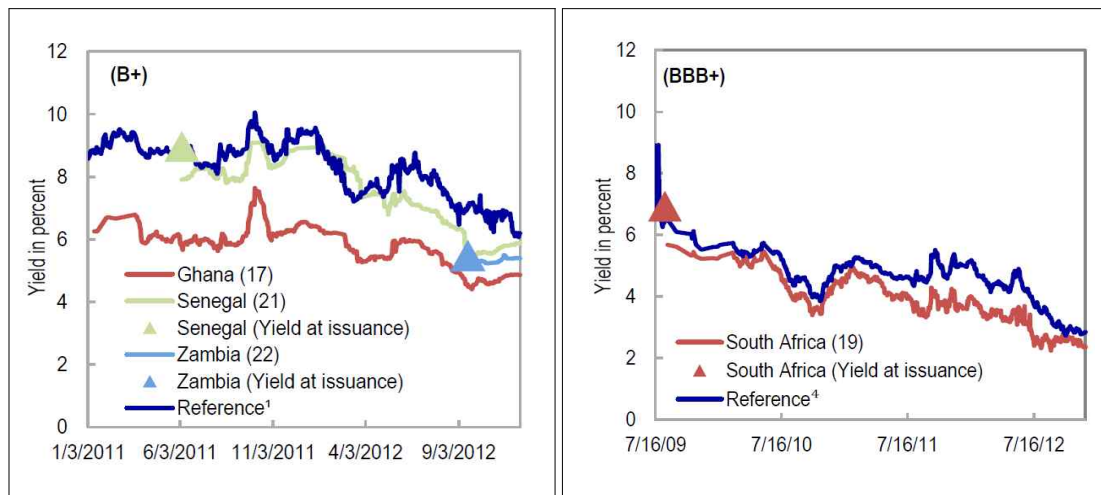
■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발행 붐이 조성된 이유로 동 지역의 견고한 경제성장¹⁾기조를 들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

1) IMF는 2013년 아프리카지역의 경제성장율을 5.6%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.2%의 약 5배 수준으로 예상한 바 있음.

상황과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관련이 있음.(IMF, 2013)

- 실제로 국채를 발행하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경우 과거보다 할인된 이자율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.

그림 1. 신용등급 B+수준 국가들과 남아공(BBB+)의 국채수익률 변화추이



자료:IMF 2013, Sub-Saharan Africa Building Momentum in a Multi-Speed World

-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발행 붐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여 자금조달 방법이 다원화된다는 기회요인과 IMF의 지적처럼 재원조달의 편의성 때문에 무분별하게 시도될 경우 향후 대상국의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위험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음.

■ 다행히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채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교량, 전력, 도로, 폐수처리 시설 같은 사회기간망 구축에 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-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채발행 붐은 일정수준의 대외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직까지는 제한된 현상임.
- 결론적으로 국채발행을 통해 야기되는 재정문제가 단기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.
- 특히 아프리카의 주식시장 역시 국채시장과 마찬가지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상기현상도 아프리카의 시장잠재력과 실물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.

〈자료: The Wall Street Journal, Bloomberg Businessweek, IMF 등〉